

# 경난가



[해제]

『경난가』에는 ‘박학효경난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경난가> 2편과 <처사영결가> 1편이 실려 있다. 이들 세 편은 작자와 창작 연대가 미상이다. 앞의 <경난가>는 갑오년 ‘大同之患’인 동학농민혁명으로 전국이 어지러운 때에 경주에 사는 주인공이 겪은 체험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과부가 살기 어려워 정절을 저버리고 과부의 삶을 청산하려 하는 모습, 빈말꾼이 남의 아내를 데리고 가버린 일, 13년 청상이 하루아침에 훼손하는 등 난으로 인해 도가 어긋난 세상을 한탄하고 있다. 이 <경난가>는 4음보 395행으로 구성되었다. 뒤의 <경난가>는 4음보 34행으로 구성되었고, 앞의 <경난가>와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이 두 작품이 제목과 부제는 같지만, 내용과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 <처사영결가>는 남성이 두 처 가운데 한 처가 죽자 이를 애도하는 내용인데, 4음보 240행으로 되어 있다.

[원문]

경난가

경난가

차신이 불행하야 만세에 심장하이  
 등한이 본년세월 갑오연 당두하이  
 잇췌는 칠월이라 사방에 난이난이  
 동난이 봉기하야 천운이 약시년가  
 방릭슈영 췌췌업소 안방상인 분별업다  
 가련흔 세월이라 이말잠간 드러보소  
 각처에 진을치고 각읍에 취군하이  
 부모처주 서로일코 원근에 길이막켜  
 간디마다 전장이라 살곳지 어디미요  
 이도죽고 저도죽고 죽난건 스람이라  
 이몸중간 심각하이 주신지계 하쳐넉고  
 영위계구 몸일망정 무위우휴 쓰시잇셔  
 서울이라 치치달나 세상구경 허여보제  
 죽영에 길이막켜 추풍영에 길이막케  
 조영으로 작노하이 문경이라 식원싸에  
 주점은 질베하고 진장피의 십이로셔  
 마포원 이십이라 산곡으로 분노하이  
 좌편는 이울영이요 우편는 조영산성이라  
 종형을 찻조하이 계신곳지 어디넉고  
 충청도 목천싸에 조판셔으 집이로다  
 노정괴을 못자하이 이울영이 정노로다

십이각이 너분한질 요간원이 십이로다  
 오난스람 전히업고 7난스람 허다후이  
 영병칠음 흥연으로 경주에 걸인이야  
 철이에 별어신이 이곳엇지 업실이요  
 일낙서산 저문날에 요간원 속소든이  
 남녀업시 만이든이 두간이라 몽누방에  
 돌너본이 좌우에는 경주사람 모도로다  
 석반바다 먹는모양 밥흔상에 셔이먹고  
 잠을즈즈 누은직션 우난소리 으히로다  
 제남편으 혼난소리 으히소리 듯기신타  
 그거동을 잠간본이 칙은훈마음 절노나셔  
 여보그말 후지마오 그으히 운난소리  
 시장후여 우난빅라 심장인나 상케마오  
 철이에 셔로만나 한방소실 되여신이  
 억제로 참으견디 아모구박 후지마오  
 이날밤 즘을자다가 소변보로 잠간깨여  
 문박게 나가션이 월식은 만정이요  
 야반인적 고요후디 난디업난 부의훈나  
 뒤으로 닉달나셔 쥬져방황 후난거동  
 나을보고 셤듯후야 연괴잠근 무러본직  
 천연이 디답후되 훈방에자든 여인이요  
 본디경주 사옹던이 나흔 슈물훈살이요  
 흥연을 오연만니 일례을 오는바에  
 가난곳전 정체업소 밋난바에 가장인디  
 출가흔 육연거지 통심정 훈변못회  
 여자으 평심소원 부모동심 고잔발여  
 민난바훈 나인디 일부중사 후자후이  
 정영훈오 평심이라 그안이 익달후오  
 마참일이 잠간바도 우연이 좃소시퍼셔  
 비록첩에 첩이되고 종에 종이되야도  
 스정을 알고보면 심전에 원이옴고  
 오펑심이 안이될듯 열여정절 잇짜히도  
 정절이 허시라 그가장 좃소보면  
 고상도 썩셤업고 오펑심 할거신이  
 잠간보와도 평심귀천이 훈변보게 달여스운이  
 원을푸러 살여쥬오 그모양을 잠간보이  
 장부으 욕심이야 욕슈을 너짓잡고  
 잠간슈작 약허후에 호련사심 심각후이

사람으 흥평싱의 영육은 다이슨이  
 여자마암 이실이라 니으정든 사든부부  
 이마음이 이슬년지 모놀개 스람일니라  
 잠간썸쳐 일너왈 세상스람 흥평싱이  
 흥변궁곤 언여식라 스람마다 인난것이  
 곤박활씩 별노싱각 일반삼인 식흥여셔도  
 초휴에 세상보면 불상흥줄 서로알고  
 옛말하고 손난이라 이를씩에 곤쳐가면  
 그만더못흥은 자연천도라 흥복정영 못할것이  
 초휴라도 그뜻아라 그마음 이 니닷거든  
 나올다시 싱각흥야 조신명을 경계흥라  
 조심흥야 조심흥야 그맘부딪 니지말나  
 계집스람 디답보소 익달흥오 신명일네  
 그날밤 진닌휴에 개동초에 표개지고  
 서울향히 직을넘어 십이간이 용바우요  
 오리간이 연풍읍셔 삼십이 칠션바우  
 이십이 괴산읍간이 산중개야 너는곳디  
 물이론하 동셔촌에 셔으로 읍이되고  
 동편에 흥판셔집이라 풍속은 경기로다  
 이십이 유목정이 잠간드러 속소흥고  
 사십이 삼걸리에 십이에 우레바우  
 이십이 구정베리 이십이 오굉장터  
 삼십이 목천가셔 안니장터 다다른이  
 죠란셔 디소가이 동난에 피우흥야  
 서울노 환고흥고 흥냥이 집을직켜  
 중형임으 소식드러 서울이라 송현갓짜  
 할걸업셔 밤을쉬고 흥양성중 초조갈식  
 개명초에 괴달나셔 교훈이라 권싱원집에  
 잠간드러 조반흥고 이곳풍속 드러본이  
 곳곳마다 동학이요 스람마다 이식로다  
 십이간이 미일치는 효목은 마천이요  
 시절는 단풍이요 바릭본이 북역게는  
 구름갓탄 산천이야 목흥로 보인곳디  
 산슈인물 다초면에 스람조좌 싱각흥이  
 빅연사지 못흥인싱 갓휴조좌 망연터라  
 슷청걸이 십이간이 손흥쳐음 개야너라  
 이십이 흥경솔밭 너르고 나진산  
 낙낙장송 드린솔은 보난바의 침일너라

이십이 소사장터 잠간가며 살퍼본이  
 호호탕탕 너른덜에 혼량업난 동서로다  
 시절은 풍연이라 곡초는 단풍이요  
 남북으로 통흔디로 디로중에 제일이요  
 야중노방 살퍼본이 청인왜인 전장터에  
 장스군졸 간디업고 썰어진 의복이며  
 스람죽은 피와무덤 목흐스개 약시혀여  
 옛일을 싱각히 정히랑으 토티터요  
 고금변복 싱각히 흥망이 자최업고  
 허다죽은 심명이야 죽은터이 말이업데  
 십이간이 칠언쥬막 감쥬걸리 진닉가셔  
 개장거리 십이로서 진의읍 다달른이  
 쥬슈흔 룡부드리 정심요기 혼창일세  
 얼는건닉 도라셔면 잠간이라 드러본이  
 장히시다 혼부인이 나기도 잘났시되  
 그남편을 전흔말이 저른손임 말유혀야  
 임이익어 만는밥에 요기혀여 본닉시오  
 외쥬인의 부른말이 여보시오 여보시오  
 요기조금 헝고가오 디강인스 헝온휴에  
 밥을바다 먹으면서 잠간보고 싱각히  
 일반인스 좃컨이와 부여마음 싱각히  
 밥을취히 안이로다 그마음에 도량이야  
 이십전 부여로서 두렷흔 모양행시  
 휴복정영 좃키되야 그남편으 디복일세  
 치헝고 썩난휴에 경쥬여인 싱각히  
 스람으 마음이야 천층만층 경역일세  
 십이간이 오미장터 중밧간이 십이로다  
 이십이 디한교다달은이 슈원이 십오리라  
 슈원치례 볼작시며 남문올나 구경히  
 성안성외 누만흔의 셔울이 비등하다  
 남문건닉 북문든이 치례단청 허다비각  
 엇씨흔 명환드른 복역쥬코 덕을깃쳐  
 제명혀여 영세불망 고금에 조최넝고  
 그다음 진닉선이 못설무화 경쳐되야  
 연화가 만발히 가을경체 차란하다  
 이십이 사근닉셔 십이강이 갈밧치라  
 십이간이 과천읍에 남티영을 넘어서셔  
 션방들 십이간이 동작강이 오리로다

강상에 썬난비는 오락가락 하다하다  
 초초주자 자바타고 강상에 놀피서서  
 스면스천 살피본이 가려흔 만학천봉  
 한양으로 기운주와 십이안에 서울이라  
 돌모음이 오리로서 남딤문이 역게로다  
 북용현 초조가서 울니종형 만늬본이  
 반갑기가 총량업셔 흥정업난 인정이라  
 순임으히 인스별절 모양조초 괴이하다  
 유련흔 여러날에 장안성중 구경하고  
 이목에 허다구경 다어이 성언할리  
 그중에 스군친구 인정이 괴이토다  
 날이만히 짐심각이 몽뭉에 잊지못히  
 판슈불너 문복후이 가정소식 닉일노알지  
 그명일 바리솟티 손을잡아 하직하고  
 사평강을 건네서서 용인읍니 다달른이  
 고향스람 황경천이 반계이 상봉후이  
 그사람으 일른말이 동난진이 쳐쳐막가잇고  
 조령스성 문을닷고 포군이 슈성후며  
 장스온이면 가지못후고 실언후면 목을치고  
 열노의 횡막비여 숙식이 어려웁고  
 귀딤안부 드러본이 약시약시 진니온이  
 가정염여 달이말고 열노에 조심후여가시오  
 하직하고 도라서서 갈길을 싱각후여  
 문복도 할거시오 조심후여 같이로다  
 열노변 살피본이 창황역식 거동이야  
 불길은 빈터이며 스람업난 빈집이며  
 총민스람 오락가락 십이오리 유진후이  
 민포에 가난스람 동학에 가난스람  
 허다봉척 진니셔서 죽손에 다달른이  
 수딤명 병정드른 죽산읍 유희잇고  
 수딤명 동학군은 무기장터 유진후고  
 물안비를 다달른이 식벳날 간난길에  
 멀이업난 송장은 동복을 가조입고  
 길을막아 허다눈딤 타너문면 싱각후이  
 모골이 소연후야 싸에발이 안이붓고  
 달리목을 건네션이 허다흔 왜병정이  
 총집고 혼도초고 좌우에 버려섯디  
 스람목을 너혈비여 악숙남걸 밋드라셔

각기달아 흐른피는 비린늬음 승천이라  
 옆플보고 압만보며 천연이 건늬올제  
 스람마음 목석이안이여든 엇지하야 무심할리  
 문경식지 상문온이 성문을 구지닷고  
 문틈으로 돌너본이 슈익명병정이 좌우에버러션이  
 위염도 장할시고 진늬갈이 그늬넨고  
 문을 썩달이며 밤비열어 달나ㅎ이  
 그중에 감토썩지 ㅎ줄을 분부ㅎ야  
 성문을 열여주며 스람을 인도ㅎ야  
 진중에 안쳐녹코 거쥬 성명이며  
 무신소간 어티가시며 이목에 허다본일  
 무슈공문 ㅎ난중예 ㅎ장이며 쥬먼기며  
 역역히도 뒤져보고 디답올실 척업시다ㅎ이  
 공연이 말유ㅎ면 못가게 말유ㅎ다  
 장부으 간담이야 업쇼보면 죽난게라  
 군졸달여 이큰말이 아동지어 조선법에  
 법예는 일반이라 군중예도 법이잇거든  
 도적을 살피보와 난세을 티평코져할진딘  
 철이허다 ㅎ인을 무단집탈 자불진딘  
 평세예난 이일노붓터날빅라 이법은 하법인다  
 그중에 디장이ㅎ난말이 본늬라 양반이분명ㅎ다  
 관계말고 썩나시오 장ㅎ시오 양반임네  
 보는바 첨이로소이다 ㅎ직ㅎ고 썩나션이  
 성문너이 간디마다 이거동 진늬난이  
 굴모웅이 진늬성이 가든길 역게로다  
 용궁영동 내려와셔 가정소식 자셔듯고  
 디구감영 내려갈식 여의골 다달른이  
 ㅎ스람으 거동보소 이식간난 경쥬사람  
 손을잡고 통곡ㅎ이 통곡은 무삼일코  
 디답업시 통곡ㅎ이 보난스람 밀망ㅎ다  
 이소연으 거동보소 우든소리 진정ㅎ고  
 노방예 제쳐안쥬 진정ㅎ야 ㅎ눈말이  
 경쥬산다 ㅎ운이 동향 지인이요  
 소히는 동이라 이식이식 가지마오  
 나도본디 스편모양 근근호구 걱정업던이  
 진작안쥬 듯는말이 ㅎ청상도 올나가며  
 ㅎ연업고 밥픈곳디 시초ㅎ코 인심쥬타ㅎ야  
 가스를 진믹ㅎ야 경보로 짐을린이

짐군은 돌니요 소실른 셔인디  
 모친나흔 설른셔인디 이심지경 청상이요  
 니나훗 십팔이요 니즈나흔 십구세라  
 열어킵이 올라간이 니즈 발병나셔  
 촌뽕도 갈길업소 히는 석양은히야  
 쥬점은 삼십이갈참인디 절면쥬면 훈탄할제  
 맛참만니 빈말순에 싹땃돈에 토티갈식  
 처을지여 간난거동 이손모 저산모을  
 구름갓치 진니간이 짜라갈길 정이업셔  
 일모황흔 전문날에 갈쥬막을 차자간이  
 간딧업고 본이업셔 실쳐하고 도라션이  
 뒤례오든 짐순보소 모친을 발려두고  
 먼여간다 촛촛오라하고 도망을 쏘갓신이  
 차질길 정이업셔 모자 서로잡고  
 일장통곡 하고난이 밤은집혀 그손곡에  
 근쳐흔편 바리본이 창에불이 보이건날  
 불을짜라 촛자가셔 쥬인불너 간청히이  
 모친는 안에자고 나는 외당에자고  
 식베날 개동초에 모친불너 가자히이  
 이런벤과 어딧잇소 쥬인눈 환부라  
 열세히 청상모친 이날밤에 회절하고  
 진정으로 혼난말이 엇지할슈 업난이라  
 나난임이 이집스람 되야신이 너는이곳 고공inna사라  
 이말잠간 듯고난이 모친안식 천연하다  
 통곡이 절노난다 사세을 싱각히이  
 어제흔날 지물일코 고은안히 정든모친  
 돌니모다 시집가고 니훈몸만 나마신이  
 산천인물 다션곳딧 도라셔른 훈몸이요  
 어보이시 가지마오 통곡을 다시히데  
 이구경을 잠간히이 부운갓탄 세상에  
 스람으 변복이여 시각이 잠간일에  
 효령당터 드러션이 군위의흥 취점히이  
 바람에 괴발이야 일광을 히롱하고  
 다부원 드러션이 왜인는 집을짓고  
 인동선손 취점군이 연로에 낙력하다  
 칠곡읍 드러션이 칠곡부스 사곡역이  
 승전하고 드론길에 햇불빛치 쏘땃치라  
 딧구개명 드러션이 증청각 뒤방에난



조흔친구 동유하이 각처에 소식드러  
 영벤경주 흥연이요 그외팔도 동학이라  
 전나도 운봉이며 안의함양 등지와  
 진주성주 의영으로 병정이 오락갈락  
 충청도 괴손이며 강원도 영월등지  
 스람죽근 소식이야 참아엇지 드르이요  
 조사휴 청렴소리 조석으로 개폐문은  
 범영이 엄숙하고 만방헌 기상들른  
 열어기싱 담비질이 모다본이 귀신갓다  
 일영절영 세월가며 경주친구 드러본이  
 흥연에 다찌나고 흥연형은 알건이와  
 집도혈고 싸도혈코 안정헌건 경주요  
 자근적물 크게차려 경주가 제일이라  
 세식이 박두하이 가정싱각 절노난다  
 고향을 온난길에 상주달이 드러간이  
 일가에 혼집이서 인정범빅 놀납더라  
 셋달 슈무날에 상주읍 접전하이  
 각읍에 소동이야 잠옥흡도 허다하고  
 순흥이라 집을간이 피난군은 셔로오며  
 뉘기뉘기 죽근중에 울리부모 평안하이  
 불형중 다형이라 허다경상 덩퍼녹코  
 경주로 내려올시 식뵤날 느지목이  
 남부어디 온난길에 풍설이 분분터라  
 삼척여리 오자하이 연노에 거동보소  
 경주에 스람이면 구박이 조심하다  
 안동싸 섬밭주막 쥬인정히 속초든이  
 경주스단 성셔망이 절문가속 어린자식  
 봉누방에 훈티드러 구박모양 자세본이  
 쳐자으 소중이야 스람마다 잇건만는  
 남녀분별 전히업소 가련경상 못볼너라  
 풍설이 장유하이 하로갈길 여흘간다  
 잇씩는 을미이월이라 경주싸 그계면에  
 치동에 효도하야 여간가디 전장산이  
 고향으로 논지하이 가흘은 허건마는  
 괴지을 살퍼본이 손슈는 셔출동리하야  
 북향마을 되야신이 봉셔암 늙문봉은  
 셔남간에 소사잇고 마봉손 션돌바우  
 퍽호가 되어신이 임비장이 압피되고

윤묘동이 청용된이 그가운디 니으집이  
 혼스유거 맛당흔나 북향이 혼탄이라  
 궁춘모양 드러보소 본형가진 스람업다  
 사람스난 마을마다 전장터이 분명하다  
 계견이 소리업고 야불폐문 스자후이  
 장장춘일 지고진날 로구질이 쉬 길썰씩  
 주린인심 허다모양 죽거죽거 발닌효상  
 익츄등장 바리던이 등익이 되고본이  
 썬세상이 경주로서 걸인이 부자너라  
 니으싱계 빈운소업 신통유업 약국이라  
 십연넘어 공부후야 스람으 경역으로  
 심익을 걸어녹코 즈미에 살진몸이  
 말업시 먼여알라 인심이 쥬장인디  
 산천을 돌너본이 스람은 무익하고  
 칭이곳지 맛지못히 안동법전 달야다가  
 친고흔나 지도후되 상후도 이만이후야  
 슈활 우익후온나 영벤지 칠읍중에  
 경주가스 부향으로 경주지방 동강서는  
 우극낙지라 후기로 듯는마암 역연후야  
 오월 슈무나훗날에 여간쳐출 다리고서  
 흥천싯터 회계사에 일초옥 빈집어더  
 걸인모양 머무던이 일삭이 못히여서  
 그걸사 집이라고 가슈가 차자와서  
 쏘흔집을 어더간이 험시리라 닉권두고  
 흥슈자으 멀리방에 약을걸고 머문거동  
 쥬인슈지 버절삼아 빈천에 낙을붓쳐  
 세월을 본니존이 우수은 싱식일다  
 니마음 모른스람 웃난거동 먼여알고  
 스람경역 후여본이 각자슈신 제일이요  
 방언과영 이흔마션 상후도 판이후다  
 중심을 논지후이 이마음 뉘알손야  
 산슈인물 사과녹코 살곳절 돌너본이  
 썬썬에 익도갓고 창파에 빅도갓다  
 쥬풍이 불작시면 낙엽도 귀근이요  
 하물며 스람이야 낙지가 어될넉고  
 스람마다 이른말이 니고향이 낙지로다  
 식도 길드린가지을갈이고 곡기도 노든물조후후고  
 기력기난 추운디추자간이 후물며 스람살곳

인걸은 지령이라 인심이 쥬장인디  
 우선고산 싱각후이 기광이요 우선거동  
 사람마다 님으쳐지 귀흔쥬로 뉘모로르리  
 산슈인물 다섯모디 몸뿐이요 다업신이  
 자연후이 걸인이요 싱각후이 광부로다  
 소소쇄쇄 온난비난 철철출출 식난집에  
 흔디만 못흔걸사 님으집이 안이로다  
 영영청승 팔이소리 솔솔기난 사갈이라  
 일낙셔산 저문날에 날이낫짜 독구소리  
 쥬정도 안이여든 과칙도 방불후다  
 싱전에 안이먹든릭반은 썩근휴에 싱각후이  
 호타 하익반과 무루 정두죽은  
 한광무도 후여신이 릿반 총탕이야  
 옛성인도 후여거든 고금비종 싱각후이  
 기갈이 감식이요 시장이 반촌이라  
 비루흔 의복과 고초흔 싱식은  
 스람마다 여식라 억제로 견디다가  
 실인으 거동보소 칙망갓치 혼난말이  
 출입이요 오입이요 이것도 팔지잇가  
 조흔집 너른전지 고로우마 짓던롱스  
 병든인스 촌난스람 쥬야평문 후여이셔  
 몫실시절 티평커든 얼는밥비 가스이다  
 그말말고 님말듯소 상도에 동난이요  
 하도에 흥연일식 천히가 일반이라  
 일어그려 세월가셔 쥬칠월 슈무날에  
 쏘흔집에 이식흔이 이식이 세번이라  
 삼천지교 옛법인가 지형을 살펴본이  
 어릭산 일지릭이 셔출이 동릭후이  
 북으로 치동이요 남으로 흥천인디  
 부모형제 갈러이셔 간운보월 유희쳐요  
 압푸로 안강너른덜은 동경고도 통히잇고  
 동서로 통흔길은 영천흥히 통히잇고  
 일점동산 송정후에 정결일촌 되야이셔  
 슈구가 무정한이 장구흥복 모를너라  
 식슈가 멀어신이 정구지인 결박이요  
 사월휴 칠월본이 버리밥에 진살이요  
 롱부으 혼난소리 릿쥬에 취히쏘다  
 쥬식이 등장후이 인심이 물풍이요

팔월추석 십월묘소 이웃인정 구경하이  
 식식이 가진음식 집집이 그이하다  
 인정에 남으음식 갑품이 업셔신이  
 마암조초 이저시며 손난병혁 의복모양  
 마암조초 추비할니 닉심스 드러보소  
 스람으 먹고입난숫치 잇소보면 쓰제업고  
 부자암만 좇타히도 불언마암 전해업고  
 싱전에 흔작정이 세가지 이셔신이  
 세가지는 무어신고 술담빅 잡기로드  
 십세전 얼일씩예 남으세정 즈셔본이  
 천석만석 허던집이 술과잡기 픽가허여  
 일동거린 그스람이 지금거지 묵견하고  
 담빅라 혼난거시 출체업난 음식이되  
 방탕코숫 치흔거동 남으실체 간간본이  
 소연으할빅 안인고로 삼십전 작정이요  
 천고에 조흔글을 가산이 마가되여  
 십육칠세 폐공하이 심중에 김푼흔이  
 남모로게 슈문마암 일단항심 쥬장으로  
 나지로 출입할제 횡음쥬총 싱각하고  
 밤으로 사쳐하야 슈불석전 싱각하며  
 쥬경야녹 동중셔을 은근이 쓰제두고  
 이십세 넘어서면 초업더목 싱각하이  
 미물에 싸치도 남걸물어 집을짓고  
 물예곡이 산에식도 밥을보고 모허들고  
 하물며 스람이야 항심소업 활작신이  
 사룡공상 사업중에 셴빅소업 무어신고  
 의약복슈 종슈중에 말근소업 혼나인직  
 불위양상 원양익는 옛스람도 효축이라  
 신통유업 상략초을 일단정신 공부하야  
 스람에 경역하고 싱이들 허즈하이  
 광딤흔 천지간에 도처에 춘풍이라  
 처음에 설약하야 츠츠광문 삼연간에  
 동셔남북 빅이안이 풍순안에 용오음에  
 오난스람 간난스람 경역되고 싱이년이  
 이왕괴중 걸연이야 임진계사 갑오써지  
 오셜멋고 밤잠못즈 츠즈온난 접인이야  
 써운밥상 물어녹코 스이업시 접인이야  
 아모리 친흔스람 정든슈작 여가업고

## 경난가

긴절보외 활룡강을 여가입셔 접인이야  
소소선약 귀천간에 거마가 명문이라  
인기성이 제송하고 당기병이 제약하야  
가고오면 바든돈이 심닉에 계합하이  
일연년에 천금전지흥성하이 혼스람에 천인이양종이라  
이를씩 이운마에 감동지으 혼는말이  
사면으로 나라든다 돈잇소 병든스람  
이약국에 나라든다 소연호걸 혼늑이요  
천시가 불헿하야 갑오동난 익연이라  
직물은 구름이라 바람에 붓쳐두고  
소중은 스람이라 심중에 심각하고  
허다히 올라간디 유독히 내려와서  
산슈인물 다선곳디 무슈고상 달기견디  
을미가을 디구영에 잠간보고 도라올제  
싸은질고 비갠날에 영천청통 곡개넘어  
귀경하나 드러보소 길가에 절문계짐  
펼쳐안즈 디성통곡 가련흔 닉팔지를  
불너가면 의통하네 그것티 두스람은  
말리업시 섯난지라 그저갈길 전이업셔  
연괴잠간 무러본이 우든소리 굿치고셔  
신세타령 혼는말이 귀천간 계집팔지  
노름하난 가장만니 세상자미 전히몰나  
계집은 종노복치듯하고 살임은 히마다업셔간이  
스람에 밧는천디 죽거몰나 작정일네

## 경난가

차신이 무용하야 소업이 허가하이  
산슈간에 집을지여 지형을 기록하이  
여릭산이 쥬산으로 뒤으로 리용하고  
형제봉이 온디로서 옹쪽으로 돌너잇고  
셔으로 자옥봉은 빅호박게 소사잇고  
동으로 설창산는 청용나자 멀여보고  
구성이 압피이셔 곤강이 뒤가된이  
촌명이 구강이요 지세는 강셔로다  
닉으집 불작시면 장관을 뉘알손야  
뒤으로 죽임이요 옹푸로 모시로다  
십이온 강너른덜은 룡담일석 드러보고  
철이헿인 통흔압길 상고매가 세월일네

세상천만 사람마다 소업이 잇건만는  
사업의 벌린몸이 지취가 달나신이  
손에올나 덜구경은 날로초풍 잠근하고

[현대역]

경난가

경난가

차신(此身)이 불행(不幸)하여 난세(亂世)에 생장(生長)하니  
 등한(等閑)히 보낸 세월(歲月) 갑오년(甲午年) 당도(當到)하니  
 이때는 칠월(七月)이라 사방(四方)에 난(亂)이 난(亂)이  
 동란(動亂)이 봉기(蜂起)하여 천운(天運)이 약시(弱時)런가  
 방백(方伯) 수령(首領)이 쓸 데 없고 양반(兩班) 상인(商人) 분별(分別) 없다  
 가련(可憐)한 세월(歲月)이라 이 말 잠깐 들어 보소  
 각처(各處)에 진(陳)을 치고 각 읍(各邑)에 취군(聚軍)하니  
 부모처자(父母妻子) 서로 잃고 원근(遠近)에 길이 막혀  
 간 데마다 전장(戰場)이라 살 곳이 어디요  
 이도 죽고 저도 죽고 죽는 건 사람이라  
 이 몸 잠깐 생각하니 사신지계(徙薪之戒) 하처(何處)넋고  
 영위계구(寧爲鷄口) 몸일망정 무위우후(無爲牛後) 뜻이 있어1  
 서울이라 치달려 세상구경 하여보세  
 죽령(竹嶺)에 길이 막혀 추풍령(秋風嶺)에 길이 막혀  
 조령(鳥嶺)으로 작로(作路)하니 문경(聞慶)이라 신원(新院) 땅에  
 주점(酒店)은 즐비하고 진장피의 십이로서  
 마포원(馬包院) 이십이라 산곡으로 분노(憤怒)하니  
 좌편(左便)은 이울영이요 우편(右便)은 조령산성(鳥嶺山城)이라  
 종형(從兄)을 찾자하니 계신 곳이 어딜런고  
 충청도(忠淸道) 목천(木川) 땅에 조판서(趙判書)의 집이로다  
 노정(路程)길을 묻자 하니 이울영이 정로(正路)로다  
 십이각이 너분한질 요간원이 십이로다  
 오는 사람 전혀 없고 가는 사람 허다하니  
 영병칠읍 흉년(凶年)으로 경주(慶州)에 걸인(乞人)이야  
 천리(千里)에 벌였으니 이곳 어찌 없으리오  
 일락서산(日落西山) 저문 날에 요간원 숙소(宿所) 드니  
 남녀(男女) 없이 많이 드니 들어감이라 몽누 방(房)에  
 둘러보니 좌우(左右)에는 경주 사람 모두로다  
 석반(夕飯) 받아 먹는 모양(模樣) 밥 한 상(床)에 셋이 먹고  
 잠을 자려고 누운 즉 우는 소리 아이로다  
 제 남편이 하는 소리 아이 소리 듣기 싫다

그 거동(舉動)을 잠깐 보니 측은한 마음 절로 나서  
 여보 그 말 하지 마오 그 아이 우는 소리  
 시장하여 우는 바이라 심장(心臟)이나 상하게 하지 마오  
 천리(千里)에 서로 만나 한 방(房) 쓰게 되었으니  
 억지로 참아 견뎌 아무 구박 하지 마오  
 이날 밤 잠을 자다가 소변(小便) 보러 잠깐 깨어  
 문(門) 밖에 나가서니 월색(月色)은 만정(滿庭)이요  
 야밤 인적(人跡) 고요한데 난데없는 부인 하나  
 뒤로 내달려서 주저(躊躇)하다가 방황(彷徨)하는 거동(舉動)  
 나를 보고 섬뜩하여 연고(緣故)를 잠깐 물어본 즉  
 천연(天然)하게 대답(對答)하되 한 방(房) 에자든 여인이요  
 본디 경주 살았던 이로 나이는 스물한 살이요  
 흉년(凶年)을 오 년(五年)만에 일례를 오는 바에  
 가는 곳은 정처(定處) 없고 믿는 바는 가장(家長)인데  
 출가(出嫁)한 육 년(六年)까지 통심정(通心情) 한번 못해  
 여자(女子)의 평생 소원(平生所願) 부모 동생 고잔발여  
 믿는 바는 나인데 일부종사(一夫從事) 하자 하니  
 정녕하오 평생(平生)이라 그 아니 애달하오  
 아침 이리 잠깐 봐도 우연히 좃고 싶어서  
 비록 첩(妾)에 첩(妾)이 되고 종에 종이 되어도  
 사정(事情)을 알고 보면 생전(生前)에 원이 없고  
 오펡생(吾平生)에 아니 될 듯 열녀정절(烈女貞節) 있다해도  
 정절(貞節)이 허사(虛事)라 그 가장(家長) 좃고 보면  
 고생(苦生)도 쓸 데 없고 오펡생(吾平生) 할 것이니  
 잠깐 보아도 평생(平生) 귀천(貴賤)이 한번 복(福)에 달렸으니  
 원(怨)을 풀어 살려주오 그 모양(模樣)을 잠깐 보니  
 장부(丈夫)의 욕심(慾心)이야 옥수(玉手)를 넋짓 잡고  
 잠깐 수작(酬酌) 허약(許約)한 후(後)에 홀연(忽然) 사심(私心) 생각하니  
 사람의 한 평생(平生)의 영욕(榮辱)은 다 있으니  
 여자(女子) 마음 있으리라 나의 정든 살든 부부(夫婦)  
 이 마음이 있을런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  
 잠깐 깨쳐 일러 왈 세상사람 한 평생(平生)이  
 한번 궁곤(窮困) 없겠는가 사람마다 있는 것이  
 곤박(困迫)할 때 별로 생각 일반삼인 식후(食後)여셔도  
 차후(此後)에 세상(世上) 보면 불쌍한 줄을 서로 알고  
 옛말 하고 사느니라 이럴 때에 고쳐가면  
 그만도 못하면 자연히 천도(天道)라 행복(幸福) 정녕 못할 것이  
 차후(此後)라도 그 뜻 알아 그 마음이 내달거든



나를 다시 생각하여 자신명을 경계(警戒)하라  
 조심(操心)하여 조심(操心)하여 그 맘 부디 내지 말라  
 계집 사람 대답(對答) 보소 애달하오 신명이네  
 그날 밤 지낸 후(後)에 개동 초(開東初)2에 표개지고  
 서울 향해 재를 넘어 십 리(十里) 가니 용바위요  
 오 리(五里) 가니 연풍읍에서 삼십 리(三十里) 칠성바위  
 이십이 괴산읍 가니 산중개야(山中介野) 넓은 곳에  
 물이 론하 동서촌(東西村)에 서(西)로 읍(邑)이 되고  
 동편(東便)에 흥판서 집이라 풍속은 경기로다  
 이십 리(二十里) 유목정(楡木亭)에 잠깐 들어 숙소(宿所)하고  
 사십 리(四十里) 삼거리에 십 리(十里)에 우레 바위  
 이십 리(二十里) 구정베리 이십 리(二十里) 오공장터  
 삼십 리(三十里) 목천(木川) 가서 안에 장터 다다르니  
 조란에서 덕소가이 동난에 피우하야(동란을 피하고자?)  
 서울로 환도(還都)하고 행랑(行廊)이 집을 지켜  
 종형(從兄)님의 소식(消息) 들어 서울이라 송현 갔다  
 할 일 없어 밤을 쉬고 한양 성 중(漢陽城中) 찾아갈 새  
 계명초(鷄鳴初)에 기다려서 교훈(教訓)이라 권생원(權生員) 집에  
 잠깐 들러 조반(朝飯)하고 이곳 풍속(風俗) 들어보니  
 곳곳마다 동학(東學)이요 사람마다 이사(移徙)로다  
 십 리(十里) 가니 의일지는 효목은 마천이요  
 시절(時節)은 단풍(丹楓)이요 바라보니 북녘에는  
 구름 같은 산천(山川)이야 목하(目下)로 보인 곳에  
 산수인물(山水人物) 다 초면(初面)에 사람 자취 생각하니  
 백 년(百年) 살지 못할 인생(人生) 갓휴 자취 망연(茫然)터라  
 휘청걸음 십 리(十里) 가니 산하(山下) 처음 개야(介野)라  
 이십 리(二十里) 흥경 솔밭 넓고 낮은 산  
 낙락장송(落落長松) 드리운 솔은 보는 바는 처음일 것이라  
 이십 리(二十里) 소사장터 잠깐 가며 살펴보니  
 호호당당(浩浩蕩蕩) 넓은 들에 한량(限量)없는 동서로다  
 시절은 풍년(豐年)이라 곡초(穀草)는 단풍(丹楓)이요  
 남북(南北)으로 통한 대로(大路) 대로(大路) 중(中)에 제일(第一)이오  
 야중노방 살펴보니 청인 왜인(淸人倭人)의 전쟁터에  
 장사군졸(壯士軍卒) 간 데 없고 떨어진 의복(衣服)이며  
 사람 죽은 피와 무덤 목허스개 약시하여  
 옛일을 생각하니 정희량의 틈진터요  
 고금변복(古今變服) 생각하니 흥망(興亡)이 자취 없고  
 허다(許多)하게 죽은 생명(生命)이야 죽은 터이니 말이 없네

십 리(十里) 가니 칠언 주막(酒幕) 감쥬걸리 지나가서  
 개장거리 십 리(十里)로서 진의읍 다다르니  
 추수(秋收)하던 농부(農夫)들이 점심(點心) 요기(療飢) 한창일세  
 얼른 건너 돌아서면 잠깐이라 들어보니  
 장(壯)하시다 한 부인(夫人)이 나기도 잘났으되  
 그 남편(男便)에게 전한 말이 저런 손님 만류(挽留)하여  
 이미 익어 많은 밥에 요기(療飢)하여 보내시오  
 외주인(外主人)의 부른 말이 여보시오 여보시오  
 요기(療飢) 조금 하고 가오 대강 인사(人事)를 한 후(後)에  
 밥을 받아먹으면서 잠깐 보고 생각하니  
 일반 인사 줄거니와 부녀(婦女)의 마음 생각하니  
 밥을 취해 아니로다 그 마음의 도량(度量)이야  
 이십(二十) 전(前) 부녀(婦女)로서 뚜렷한 모양 행세(模樣行勢)  
 후복(後福) 정녕 좋게 되어 그 남편(男便)의 대복(大福)일세  
 치하(致賀)하고 떠난 후에 경주 여인(慶州女人) 생각하니  
 사람의 마음이야 천층만층(千層萬層) 경역일세  
 십 리(十里) 가니 오미장터 중밋 가니 십 리(十里)로다  
 이십 리(二十里) 대한교 다다르니 수원(水原)이 십오 리(十五里)라  
 수원(水原) 치레3 볼 것이며 남문(南門) 올라 구경하니  
 성(城) 안 성(城) 외(外) 누만후의 서울이 비등(比等)하다  
 남문(南門) 건너 북문(北門)에 드니 치레 단청(丹青) 허다(許多)한 비각(碑閣)  
 어떠한 명환(名宦)들은 복역 좋고 덕을 갖춰  
 제명(題名)하여 영세불망(永世不忘)4 고금(古今)의 자취런고  
 그 다음 지나서니 못을 무화 경쳐되야  
 연화(蓮花)가 만발하니(滿發) 가을 경치(景致) 자랑한다  
 이십 리(二十里) 사근늬서 십 리(十里) 가니 갈밋치라  
 십 리(十里) 가니 과천읍(果川邑)에 남태령(南泰嶺)을 넘어서서  
 선방들 십 리(十里) 가니 동작강(銅雀江)이 오 리(五里)로다  
 강상(江上)에 떠난 배는 오락가락 하다 한다  
 초초쥬자 잡아타고 강상(江上)에 높이 서서  
 사면산천(四面山川) 살펴보니 가련한 만학천봉(萬壑千峰)  
 한양(漢陽)으로 괴운쥬와 십 리(十里) 안에 서울이라  
 돌모음이 오 리(五里)로서 남대문(南大門)이 여기로다  
 북용현 찾아가서 우리 종형(從兄) 만나보니  
 반갑기가 측량 없어 한정(限定) 없는 인정(人情)이라  
 순임 아이 인사범절(人事凡節) 모양(模樣) 쫓아 기이(奇異)하다  
 유련(留連)한 여러 날에 장안 성 중(長安城中) 구경하고  
 이목(耳目)에 허다(許多)한 구경 다 어이 성언(成言)하리

그 중(中)에 사권 친구(親舊) 인정(人情)이 기이(奇異)하도다  
 날이 많아 집 생각이 몽매(夢寐)에 잊지 못해  
 판수5 불러 문복(問卜)하니 가정소식(家庭消息) 내일(來日)로 하지  
 그 명일(明日) 바란 끝에 손을 잡아 하직(下直)하고  
 사평강(沙平江)을 건너서서 용인읍내(龍仁邑內)에 다다르니  
 고향사람 황경천과 반가이 상봉(相逢)하니  
 그 사람의 이른 말이 동란 진(動亂陳)이 처처(處處) 막고 있고  
 조령산성(鳥嶺山城) 문을 닫고 포군(砲軍)이 수성(守城)하며  
 장사 아니면 가지 못하고 실언(失言)하면 목을 치고  
 열로(列路)에 행막(行幕)6 비여 숙식(宿食)이 어렵고  
 귀택(貴宅)의 안부(安否) 들어보니 약시약시(若是若是) 지내니  
 가정 염려(家庭念慮) 달리 말고 열로(列路)에 조심(操心)하여 가시오  
 하직(下直)하고 돌아서서 갈 길을 생각하여  
 문복(問卜)도 할 것이오 조심(操心)하여 가리로다  
 열로변(列路邊) 살펴보니 창황역색 거동(舉動)이야  
 불길은 빈 터이며 사람 없는 빈 집이며  
 총 맨 사람 오락가락 십 리(十里) 오 리(五里) 유진(留陣)7하니  
 민포(民砲)8에 가는 사람 동학(東學)에 가는 사람  
 허다(許多)한 봉책 지나 서서 죽산(竹山)에 다다르니  
 수백 명(數百名) 병정(兵丁)들은 죽산읍(竹山邑) 위에 있고  
 수백 명(數百名) 동학군(東學軍)은 무개장터 유진(留陣)하고  
 물안비에 다다르니 세뱃날 가는 길에  
 머리 없는 송장(送葬)은 동복(冬服)을 갖춰 입고  
 길을 막아 허다 눈딤 타너문면 생각하니  
 물골이 소연(騷然)하여 땅에 발이 아니 붙고  
 달리 목을 건너서니 허다(許多)한 왜병정(倭兵丁)이  
 총(銃) 잡고 환도(環刀) 차고 좌우(左右)에 벌여 섰되  
 사람 목을 넷을 베어 악숙남걸 매달아서  
 각기 달아 흐른 피는 비린내음 승천(昇天)이라  
 옆을 보고 앞만 보며 천연(天然)히 건너올 제  
 사람마음 목석(木石)이 아니거든 어찌하여 무심(無心)하리  
 문경새재 상문 오니 성문(城門)을 굳이 닫고  
 문틈으로 둘러보니 수백 명(數百名) 병정(兵丁)이 좌우(左右)에 벌여서니  
 위엄(威嚴)도 장(壯)할시고 지나갈 이 그 뉘런고  
 문(門)을 두드리며 바삐 열어 달아나니  
 그 중(中)에 감투 쓴 자가 할 일을 분부(分付)하여  
 성문(城門)을 열어 주며 사람을 인도(引導)하여  
 진중(陣中)에 앉혀 놓고 거주지(居住地)와 성명(姓名)이며

무슨 소간(所幹)으로 어디 가시며 이목(耳目)으로 허다(許多)하게 본 일  
 무수(無數)한 국문(鞫問) 하는 중(中)에 행장(行裝)이며 주머니며  
 역력(歷歷)히도 뒤져보고 대담(挽留)하니 책(策) 없다 하니  
 공연(空然)히 만류(挽留)하면 못 가게 만류(挽留)한다  
 장부(丈夫)의 간담(肝膽)이야 없고 보면 죽는 것이라  
 군졸(軍卒)더러 이른 말이 아동지어 조선법(朝鮮法)에  
 법례(法禮)는 일반(一般)이라 군중(軍中)에도 법(法)이 있거든  
 도적(盜賊)을 살펴보고 난세(亂世)를 태평(太平)하고자 할 것인데  
 천리(千里)에 허다(許多)한 행인(行人)을 무단집탈 잡을 것인데  
 평세에는 이 일로부터 날 베라 이 법(法)은 하법이다  
 그 중(中)에 대장(大將)이 하는 말이 보내라 양반(兩班)이 분명(分明)하다  
 관계(關係) 말고 떠나시오 장(壯)하시오 양반(兩班)님네  
 보는 바 처음이로소이다 하직(下直)하고 떠났으니  
 성문(城門) 넷 간 대 마다 이 거동(舉動) 지나가니  
 굴(窟) 모퉁이 지나서니 가던 길 역계로다  
 용궁 영동 내려와서 가정 소식(家庭消息) 자세(仔細)히 듣고  
 대구감영(大邱監營) 내려갈 새 여의골 다다르니  
 한 사람의 거동(舉動) 보소 이 사이에 가는 경주 사람  
 손을 잡고 통곡(慟哭)하니 통곡(慟哭)은 무슨 일이고  
 대답(對答) 없이 통곡(慟哭)하니 보는 사람 민망(憫惘)하다  
 이 소년(少年)의 거동(舉動) 보소 우는 소리 진정(鎮靜)하고  
 노방(路傍)9에 지쳐 앉아 진정(鎮靜)하며 하는 말이  
 경주(慶州) 산다 하니 동향 지인(同鄉至人)이오  
 소해(小溪)10는 동이라 이 사이에 이 사이에 가지 마오  
 나도 본디 살든 모양이 근근(僅僅)이 호구(糊口) 걱정 없더니  
 진작 앉아 듣는 말이 충청(忠淸) 상도(上途) 올라가며  
 흉년(凶年) 없고 밥 푼 곳에 시초훗코 인심(人心) 좋다 하여  
 가산을 진매(盡賣)하여 경보(輕步)로 짐을 매니  
 짐꾼은 돌이요 소실(小室)은 셋인데  
 모친 나이는 서른셋인데 이십에 이르러 청상(靑孀)이요  
 내 나이 십팔이요 내자(內子)나이는 십구 세라  
 여러 백 리(百里) 올라가니 내자(內子) 발병(發病)나서  
 촌보(寸步)11도 갈 길 없고 해는 석양 오는 해야  
 주점(酒店)은 삼십 리(三十里) 갈 참인데 절며 뛰며 한탄(恨歎)할 제  
 마침 만나 빈말꾼에 싹 닳돈에 태워갈 새  
 채를 쥐어 가는 거동 이 산모퉁이 저 산모퉁이를  
 구름 같이 지나가니 따라갈 길 정(正)히 없어  
 일모황혼(日暮黃昏) 저문 날에 갈 주막(酒幕)을 찾아가니

간 데 없고 보니 없어 실처(失妻)하고 돌아서니  
 뒤에 오던 짐꾼 보소 모친(母親)을 버려두고  
 먼저 간다 찾아 오라하고 도망(逃亡)을 또 갔으니  
 찾을 길 정(正)히 없어 모자(母子) 서로 잡고  
 일장통곡(一場慟哭) 하고나니 밤은 깊어 그 산곡(山谷)에  
 근처(近處) 한 편(便)을 바라보니 창(窓)에 불이 보이거늘  
 불을 따라 찾아가서 주인(主人) 불러 간청(懇請)하니  
 모친(母親)은 안에 자고 나는 외당(外堂)에 자고  
 세뱃날 개동 초(開東 初)에 모친(母親) 불러 가자 하니  
 이런 변괴(變怪) 어디 있소 주인은 환부(鰥夫)라  
 열세 해 청상모친(靑孀母親) 이날 밤에 훼손(毀節)하고  
 진정(眞正)으로 하는 말이 어찌할 수 없느니라  
 나는 이미 이 집 사람 되었으니 너는 이곳 고공(雇工)이나 살아가  
 이 말 잠깐 듣고 나니 모친 안색(母親顏色) 천연(天然)하다  
 통곡(慟哭)이 절로 난다 사세(事勢)를 생각하니  
 어제 한 날 재물(財物) 잃고 고운 아내 정든 모친(母親)  
 둘이 모두 시집가고 내 한 몸만 남았으니  
 산천인물(山川人物) 다섯 곳에 돌아 서러운 한 몸이요  
 여보 이 사이에 가지 마오 통곡(慟哭)을 다시 하되  
 이 구경을 잠깐 하니 부운(浮雲) 같은 세상(世上)에  
 사람의 변복(變福)이여 시각(時刻)이 잠깐 일에  
 효령당 터에 들어서니 군위(軍威) 의흥(義興) 취점(取占)하니  
 바람에 깃발이야 일광(日光)을 희롱(戲弄)하고  
 다부원(多富院) 들어서니 왜인(倭人)은 집을 짓고  
 인동선산(隣洞) 취점군(取占軍)이 연로에 낙력(落力)하다  
 칠곡읍 들어서니 칠곡부사 사곡역이  
 승전(勝戰)하고 들른 길에 햇불 빛이 꽃밭이라  
 대구 개명 들어서니 증청각 뒷방에는  
 좋은 친구 동유(同遊)하니 각처(各處)의 소식(消息) 들어  
 영변(寧邊) 경주(慶州) 흉년(凶年)이요 그 외(外) 팔도(八道) 동학(東學)이라  
 전라도(全羅道) 운봉(雲峰)이며 안의(安義) 함양(咸陽) 등지(等地)와  
 진주(晉州) 성주(星州) 의령(宜寧)으로 병정(兵丁)이 오락가락  
 충청도(忠淸道) 괴산(槐山)이며 강원도(江原道) 영월(寧越) 등지(等地)  
 사람 죽은 소식(消息)이야 차마 어찌 들으리오  
 조사 휴 청령소리 조석(朝夕)으로 개폐문(開閉門)은  
 법령(法令)이 엄숙(嚴肅)하고 만방헌 기생(妓生)들은  
 여러 기생(妓生) 담뱃질이 모두 보니 귀신(鬼神) 같다  
 이런 저런 세월(歲月) 가며 경주 친구(慶州 親舊) 들어보니

흉년(凶年)에 다 떠나고 흉년(凶年) 흉은 알거니와  
 집도 헐고 땅도 헐고 안정(安定)한 건 경주(慶州)요  
 작은 재물(財物) 크게 차려 경주(慶州)가 제일(第一)이라  
 세식이 박두(迫頭)하니 가정 생각 절로 난다  
 고향을 온난 길에 상주(尙州)에 달려 들어가니  
 일가(一家)의 한 집 있어 인정범백(人情凡百) 놀랍더라  
 설달 스무날에 상주읍(尙州邑) 접전(接戰)하니  
 각읍(各邑)에 소동(騷動)이야 잔혹함도 허다(許多)하고  
 순흥(順興)이라 집을 가니 피난군(避難群)은 서로 오며  
 누가 누가 죽은 중(中)에 우리 부모(父母) 평안(平安)하니  
 불행(不幸) 중(中) 다행(多幸)이라 허다(許多)한 경상(輕傷) 덮어놓고  
 경주(慶州)로 내려올 새 세뱃날 느지막이  
 남부여대(男負女戴) 오는 길에 풍설(風說)이 분분(紛紛)터라  
 삼백여 리(三百餘里) 오자 하니 연노에 거동(舉動) 보소  
 경주(慶州)에 사람이면 구박(驅迫)이 조심(操心)하다  
 안동(安東) 땅 섬 밖 주막(酒幕) 주인(主人) 정(正)히 숙초든이  
 경주 산다는 성서방(성서방)이 젊은 가속 어린 자식(子息)  
 몽루방에 한 데 들어 구박 모양 자세(仔細)히 보니  
 처자(妻子)의 소중(所重)이야 사람마다 있건마는  
 남녀분별(男女分別) 전혀 없고 가련(可憐)한 경상(景狀) 못 보겠구나  
 풍설(風雪)이 장유(장유)하니 하루 갈 길 열흘 간다  
 이때는 을미(乙未) 이월(二月)이라 경주(慶州) 땅 기계면에  
 치동(치동)에 효도(孝道)하여 여간가디 전장(田莊) 사니  
 고향(故鄉)으로 논지ㅎ이 가흠은 ㅎ건마는  
 기지를 살펴보니 산수(山水)는 서출동래(西出東來)하여  
 북향(北向)마을 되었으니 봉서암 높은 봉은  
 서남 간(西南間)에 솟아 있고 마봉산 선돌바위  
 백호(白虎)가 되었으니 임비장이 앞이 되고  
 윤묘등이 청룡(靑龍)되니 그 가운데 나의 집이  
 흠스유거 마땅하다 북향(北向)이 한탄(恨歎)이라  
 궁춘 모양(模樣) 들어 보소 본형 가진 사람 없다  
 사람 사는 마을마다 전장터가 분명하다  
 계견이 소리 없고 야불페문 살자 하니  
 장장춘일(長長春日) 길고 긴 날 노구질이 쉬 ㄴ 길쉴씩  
 주린 인생 허다(許多)한 모양(模樣) 죽어 죽어 발닌효상  
 익츄등장 바라더니 등익이 되고 보니  
 딴 세상(世上)이 경주(慶州)로서 걸인(乞人)이 부자(富者)더라  
 나의 생계(生計) 배운 소업(所業) 신농유업(神農淚業)12 약국(藥局)이라

십 년(十年) 넘어 공부(工夫)하여 사람의 경력(經歷)으로  
 생애(生涯)를 걸어 놓고 재미에 살찐 몸이  
 말없이 먼저 알아 인심(人心)이 주장인디  
 산천(山川)을 둘러보니 사람(사람)은 무매(無味)하고  
 싱이곳지 맛지못히 안동법전 달아다가  
 친고흔나 지도혹되 상혹도 이만이하야  
 슈활 우매(愚昧)하오나 영번지 칠읍 중에  
 경주(慶州) 가서 부향으로 경주지방(慶州地方) 동강서는  
 우극낙지라 하기로 듣는 마음 역력하여  
 오월(五月) 스무나흘 날에 여간쳐출 데리고서  
 흥천 새터 회계사에 일초옥(一草屋) 빈 집 얻어  
 걸인 모양(乞人模樣)으로 머물더니 일삭(一朔)이 못 하여서  
 그것을 집이라고 가수(家嫂)가 찾아와서  
 또 한 집을 얻어가니 협실(夾室)이라 닉권두고  
 흥수자의 머리방에 약(藥)을 걸고 머무는 거동(舉動)  
 주인(主人) 슈지 벅을 삼아 빈천(貧賤)에 낙(樂)을 부쳐  
 세월(歲月)을 보내자니 우스운 행색(行色)이다  
 내 마음 모르는 사람 웃는 거동(舉動) 먼저 알고  
 사람 경력(經歷) 하여 보니 각자(各自) 수신(修身) 제일(第一)이요  
 방언과영 이훈마션 상하(上下)도 판이(判異)하다  
 중심(中心)을 논지(논지)하니 이 마음 뉘 알쏘냐  
 산수인물(山水人物) 사과 놓고 살 곳을 둘러보니  
 셋쨌에 밍도 같고 창파(滄波)에 배도 같다  
 추풍(秋風)이 불 것이면 낙엽(落葉)도 귀근이요  
 하물며 사람이야 낙지(樂地)가 어디런고  
 사람마다 이르는 말이 내 고향(故鄉)이 낙지(樂地)로다  
 새도 길들인 가지를 가리고 고기도 놀던 물 좋아하고  
 기러기는 추운 데 찾아가니 하물며 사람 살 곳  
 인걸(人傑)은 지령이라 인심(人心)이 주장인디  
 우선고산 싱각혹이 기광이요 우스운 거동(舉動)  
 사람마다 나의 처자(妻子)가 귀한 줄을 뉘 모르리  
 산수인물(山水人物) 다섯모되 몸 뿐이오 다 없으니  
 자영혹이 걸인(乞人)이오 생각하니 광부로다  
 소소쇄쇄 오는 비는 철철출출 새는 집에  
 한 대만 못한 것을 집이 아니로다  
 영영청승 파리 소리 솔솔 기는 사갈이라  
 일락서산(日落西山) 저문 날에 날이 섰다 독구 소리  
 주정(酒酲)도 아니거든 과객(過客)도 방불(彷彿)하다



생전(生前)에 아니 먹던 맥반(麥飯)은 썩근 후(後)에 생각하니  
 호타 하맥반(夏麥飯)과 무루 정두죽은  
 한광무도 하였으니 맥반총탕(麥飯蔥湯)13이야  
 옛 성인(聖人)도 하였거든 고금비종(古今比踵)14 생각하니  
 기갈이 감식이요 시장이 반찬이라  
 비루(鄙陋)한 의복(衣服)과 고초(苦楚)한 행색(行色)은  
 사람마다 여사(旅思)15라 억제로 견디다가  
 실인의 거동(舉動) 보소 책망(責望) 같이 하는 말이  
 출입(出入)이요 오입이요 이것도 팔자(八字) 있을까  
 좋은 집 너른 전지(田地) 고로우마 짓던 농사(農事)  
 병(病)든 인사(人事) 찾는 사람 주야평문 하여 있어  
 몹쓸 시절(時節) 태평(太平)커든 얼른 바빠 감시다  
 그 말 말고 내 말 듣소 상도(上道)에 동란(動亂)이요  
 하도(下道)에 흉년(凶年)일세 천하(天下)가 일반(一般)이라  
 일어그려 세월(歲月) 가서 추칠월(秋七月) 스무날에  
 또한 집에 이사(移徙)하니 이사(移徙)가 세 번(番)이라  
 삼천지교(三遷之教) 옛 법(法)인가 지형(地形)을 살펴보니  
 아래산 일 지맥(一地脈)이 서출(西出)이 동래(東來)하니  
 북(北)으로 치동이요 남(南)으로 흥천인데  
 부모형제(父母兄弟) 갈려 있어 간운보월 유회처요  
 앞으로 안강 너른 들은 동경고도 통해 있고  
 동서(東西)로 통(通)한 길은 영천흥해 통해 있고  
 일점동산 송정후에 정결일촌 되어 있어  
 수구(수고)가 무정하니 장구(長久)한 흥복(興復) 모를러라  
 식슈가 멀었으니 정구지인 결박이요  
 사월(四月) 후 칠월(七月)에 보니 보리밥에 찐 살이요  
 농부(農夫)의 하는 소리 맥주(麥酒)에 취(醉)했도다  
 추색(秋色)이 등장(登場)하니 인심(人心)이 물풍(物豐)이요  
 팔월 추석(八月秋夕) 시월 묘사(十月墓祀) 이웃 인정(人情) 구경하니  
 색색(色色)이 갖은 음식(飲食) 집집이 기이(奇異)하다  
 인정(人情)에 남은 음식(飲食) 감품이 없었으니  
 마음조차 잊었으며 손난 범백(凡百) 의복 모양(衣服模樣)  
 마음조차 추비(醜卑)하니 내 심사(心思)를 들어 보소  
 사람의 먹고 입는 사치(奢侈) 있고 보면 뜻에 없고  
 부자가 아무리 좋다 해도 부러운 마음 전혀 없고  
 생전(生前)에 한 작정(作定)이 세 가지 있었으니  
 세 가지는 무엇인고 술 담배 잡기(雜技)로다  
 십 세(十歲) 전(前) 어릴 때에 남의 세정(細情) 자세히 보니



천석 만석(千石萬石) 하던 집이 술과 잡기(雜技) 패가(敗家)하여  
 일동거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목견하고  
 담배라 하는 것이 출처(出處) 없는 음식(飲食)이되  
 방탕코숯 치하는 거동(舉動) 남의 실체(實體) 간간히 보니  
 소년의 할배 아닌고로 삼십(三十) 전(前) 작정(作定)이요  
 천고(千古)에 좋은 글을 가산이 마가 되어  
 십육칠 세(十六七歲) 폐공(廢工)하니 심중(心中)에 깊은 한(恨)이  
 남모르게 숨은 마음 일단항심(一團恒心) 주장으로  
 낮으로 출입(出入)할 제 횡음주총 생각하고  
 밤으로 사처(處)야 슈불석전 생각하며  
 주경야독(晝耕夜讀) 동중서(董仲舒)를 은근히 뜻에 두고  
 이십 세(二十歲) 넘어서면 초업(初業)더욱 생각하니  
 미물(微物)에 까치도 나무를 물어 집을 짓고  
 물의 고기 산의 새도 밥을 보고 모여들고  
 하물며 사람이야 항심소업(恒心所業) 할 것이니  
 사농공상(士農工商) 사업(事業) 중(中)에 선배 소업(先輩所業) 무엇인고  
 의약복수 증슈 중(中)에 말근 소업 하나인즉  
 불위양상 원양의는 옛사람도 효칙(效則)이라  
 신농유업(神農淚業) 상백초를 일단정신(一團精神) 공부(工夫)하여  
 사람에 경력(經歷)하고 생애(生涯)를 하자하니  
 광대(廣大)한 천지 간(天地間)의 도처(到處)에 춘풍(春風)이라  
 처음에 설악하여 차차광문 삼년 간(三年間)에  
 동서남북(東西南北) 백 리(百里) 안이 풍순 안의 용오름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경역 되고 생애러니  
 이왕 그 중 걸연(傑然)이야 임진(壬辰) 계사(癸巳) 갑오(甲午)까지  
 오설멋고 밤잠 못자 찾아오는 접인(接人)이야  
 더운 밥상 물려놓고 사이 없이 접인(接人)이야  
 아무리 친(親)한 사람 정(情)든 수작(酬酌) 여가(餘暇)가 없고  
 긴절보의 할롱강을 여가(餘暇) 있어 접인(接人)이야  
 소소선악(小小善惡) 귀천 간(貴賤間)에 거마(車馬)가 명문(名門)이라  
 인기성이 제송하고 당기병이 제약(約)야  
 가고 오며 받은 돈이 심내(心內)에 계합(契合)하니  
 일 년(一年) 내(內)에 천금전지(千金田地) 흥성(興盛)하니 한 사람의 천인(千人)이왕종(仰從)이라  
 이럴 때 이 운마에 감동 있어 하는 말이  
 사면(四面)으로 날아든다 돈 있고 병든 사람  
 이 약국(藥局)에 날아든다 소년호걸(少年豪傑) 하나이요  
 천시가 불행(不幸)하여 갑오동란(甲午動亂) 액년(厄年)이라  
 재물(財物)은 구름이라 바람에 부쳐 두고

## 경난가

소중(所重)은 사람이라 심중(心中)에 생각하고  
허다(許多)하게 올라간 데 유독(惟獨) 내려와서  
산수인물(山水人物) 다선고되 우수(無數)한 고상(苦生) 달게 견뎌  
을미(乙未) 가을 대구영(大邱營)에 잠깐 보고 돌아올 때  
땅은 질고 비갠 날에 영천청통 고개 넘어  
구경 하나 들어보소 길가에 젊은 계집  
펼쳐 앉아 대성통곡(大聲痛哭) 가련(可憐)한 내 팔자(八字)를  
불러가면 애통(哀慟)한데 그 곁에 두 사람은  
말이 없이 섰는지라 그저 갈 길 전혀 없어  
연고(緣故)를 물어보니 울던 소리 그치고서  
신세타령 하는 말이 귀천 간(貴賤間) 계집 팔자(八字)가  
노름하는 가장(家長) 만나 세상(世上) 재미 전혀 몰라  
계집은 종노 복치 듯 하고 살임은 해마다 없어져가니  
사람에게 받는 천대(賤待) 죽어 몰라 작정(作定)이네

## 경난가

차신(此身)이 무용(無用)하여 소업(所業)이 한가(閑暇)하니  
산수 간(山水間)에 집을 지어 지형(地形)을 기록(記錄)하니  
여래산이 주산(主山)으로 뒤로 내뿜하고  
형제봉(兄弟峰)이 안대로서 앞으로 둘러있고  
서로 자옥봉은 백호(白虎) 밖에 솟아 있고  
동으로 설창산은 청룡(靑龍) 나자 멀어 보고  
구성이 앞에 있어 곤강이 뒤가 되니  
촌명(촌명)이 구강이요 지세(地勢)는 강서로다  
나의 집 볼 것이면 장관을 뉘 알쏘냐  
뒤로 죽음이요 앞으로 모시로다  
십 리(十里) 안 강 너른 들은 농담일설(弄談一說) 들어 보고  
천 리(千里) 행인(行人) 통(通)한 앞길 상고매가 세월(歲月)이네  
세상(世上) 천만 사람마다 소업(所業)이 있건마는  
사업에 벌린 몸이 자취가 달랐으니  
산에 올라 달구경은 날로 초풍 잠깐하고

[각주]

- 1) 영위계구 무위우후(寧爲鷄口 無爲牛後) : 차라리 닭의 주둥이가 되었으면 되었지 소 궁둥이는 되지 말라.
- 2) 개동02(開東) : 먼동이 틈. 또는 그런 때.
- 3) 치례 : 잘 손질하여 모양을 냄.
- 4) 영세불망(永世不忘) : 영원히 잊지 아니함.
- 5) 판수 :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맹인.
- 6) 행막(行幕) : 길을 가다가 쉬기 위하여 친 장막. 또는 장막을 치는 행위를 말함.
- 7) 유진(留陣) : 군사들이 머물러 있다. 또는 군사들을 머물러 있게 하다
- 8) 민포(民砲) : 백성들이 마을 단위로 들고일어나 서로 결속하여 군대의 편제를 갖추고 화포군(火砲軍)을 만들어 대비하였는데, 의병(義兵)과 유사하다.
- 9) 노방(路傍) : 길가.
- 10) 소해(小溪) : 열네댓 살의 어린 중.
- 11) 촌보(寸步) : 몇 발짝 안 되는 걸음.
- 12) 신농유업(神農淚業) : 농사짓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는 고대 중국의 신농씨의 유업이라는 뜻.
- 13) 맥반총탕(麥飯蔥湯) : ‘보리밥과 팥국’이라는 뜻으로 거친 음식을 이룸.
- 14) 고금비종(古今比踵) : 옛날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나옴.
- 15) 여사(旅思) : 여행할 때의 심정. 또는 나그네의 심정.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